

통일 칼럼

北 김주애 후계자 수업

북한의 군사 안보 전략만큼이나 내부 권력 구도와 직결된 '후계 세습' 역시 새해에도 중요하다. 그 중심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안 보였던 주애가 최근 들어 부쩍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분명한 건 북한 당국이 주애를 체제 선전의 핵심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9차 당대회에 예정된 만큼 그녀의 행보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주애가 공식 행사에 등장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었다. 등장 초기 옛된 티가 역력했던 소녀는 이제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김 위원장의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다. 새해 첫날엔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처음으로 공식 참배했다. 한층 선명해진 존재감은 김주애를 북한의 4대 세습 구도와 연결 짓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분기점은 지난해 있었던 '석 달간'의 부재다. 지난해 9월 일일 공백 기간 동안 나름대로 잠재적 후계자로서의 어떤



정복규
논설위원

심화 학습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주애는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전승절 행사 동행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석 달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북한 공군의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장이었다. 김 위원장이 사열하는 동안 먼발치에서 대기하던 김주애는 사열이 끝나자 단독으로 레드카펫에 올라 부대 깃발에 홀로 목례를 건넸다. 김 위원장의 쯤려가 끝난 뒤 김주애가 조종사들에게 거수경례를 받고 화답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공개된 장면만 봐도 김주애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한 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잠재적인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다.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자에서 열린 호텔 준공식에서는 이보다 더 파격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부인 리실주는 의도적으로 부녀와 거리를 둔 모습이 포착됐다. 딸 김주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 연출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2022년 첫 등장 이후 군사, 경제, 외교 분야까지 보폭을 넓히며 매 순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주애의 이런 행보가 김정은의 4대 세습 의지를 넘어 북한 당국이 여성 수령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려는 시

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국가정보원 또한 김주애가 지난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동행한 것을 두고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는 결국 김씨 일가가 각자의 역할을 통해 김 위원장의 수령 지위를 높이고 우상화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버지로 모든 주인이 인식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가는 과정은 주어진 선전 선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는 선대 수령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 없다는 것이다. 아직은 연령상도 짧고 통치 기간도 짧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딸의 등장으로 상쇄를 시켰다.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 없이 후계자론만 무성한 상황에서 올해 9차 당대회는 김주애의 진짜 위상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주애를 통해서 백두 혈통의 연속성 그리고 핵 무력의 연속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안정과 번영 보장이라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기자수첩

전북을 연고로 하는 기업에 힘 불어넣는 지혜 필요

우리 전북에 동지를 튼 수많은 회사들이 과연 기업 하기 좋은 곳일까? 이런 뒤돌아보고 어떠한 방식의 지원이 기업에 힘을, 그리고 더불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모두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기업 유치부터 생산 가능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력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이다. 각 지자체 별로 여러 특화된 산업 단지가 존재 하며 그 산업의 종류 역시 다양할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고장의 발전과 더 좋은 환경을 제공 하므로써 기업 하기 좋은 곳, 아울러 생산의 다양성을 공유 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 지역우선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생산의 다양성을 최대한 살려 어느 정도의 제도적 뒷받침 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생산의 거점을 만드려는 기업은 늘어날 것이다. 우선 수많은 기업이 우리 고장에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는 현재, 어느 기업에는 수많은 혈세가 지원이 되었지만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의문을 남긴다. 기업의 무한경쟁 속 우리 고장의 기업제품은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지역 자체에 역차별은 없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할 때 같은 품질의 제품이라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우리 고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업체가 선택 된다면 그 또한 기업에는 큰 힘이 되고, 기업에 살리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가지 혜택은 결국 지역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역 연고 제품 선택은 우선 이를 유치하여 관리하는 지자체 행정이 먼



김만호
지방부
군산주재

저 움직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특히 타 어느 지역의 사례를 볼 때 그 지역 제품 우선주의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지역 제품이 소외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 지역 제품 소외라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뒤돌아 봐야 하며 지역 연고 기업사랑 이라는 마음으로 행정과 정책 이 뒷받침 된다면 더 많은 기업은 우리 지역에 동지를 튼 것이며

그로 인한 시너지는 극대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지역에 충분하고 넘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존재 한다 해도 지역에서 외면 받는다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역 제품의 우선 선택은 과정이 아니고 필수가 되어 지역 기업인 모두에게 힘이 되어줄 필요가 존재한다.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 하는 부분을 생각하여 자체 지역 제품 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마음과 타 시도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필요성도 있고, 우리 전북 지역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민관이 힘을 합할 때, 우리 고장에 좋은 기업 유치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인구 유입으로 변화지 않을까 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감사로 보내는 마음이 필요할 때이다. 지역 기업사랑은 말이 아니고 든든한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이 같이 할때 빛이 발할 것이다. 전북 모든 민관 협심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타파 할 지혜가 필요하다.

사설

AI 시대 노동의 가치

5년 안에 전체 일자리의 20% 정도가 변할 거라고 예측한다. AI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일자리 9천2백만 개가 사라지겠지만, 반대로 1억 7천만 개가 새로 생길 거라고 내다봤다. 반면, 일하는 시간 중 많게는 절반이 넘게 자동화로 대체되고, 저숙련 일자리 수백만 개는 사라질 것이다. 산업 현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온도가 수백 도인 극한 환경부터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인 작업까지, AI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화상과 가스 중독 우려로 주 1회에 그쳤던 열화상 측정, 이제는 매일 할 수 있게 됐다. 600km가 넘는 이송 설비를 일일이 열여 안을 보는 대신 카메라가 센서로 점검한다. 47도 고온에서 나오는 도금 찌꺼기를 삼 대신 로봇 팔로 퍼내는 것이다. 위험한 작업은 이제 AI로

못 뛴다. 물류 센터에는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가 등장했다. 그냥 자동화 공정과는 달리 박스에 맞게 충전재를 넣고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박스가 없는 곳을 정확히 포착해 포장한 물건을 놓는다.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 대신 위험한 작업에 투입해 작업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와 로봇 같은 물리적 장치가 결합한 이른바 '퍼지컬 AI' 한국은 퍼지컬AI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꼽힌다. 이미 증업원 수 대비 산업용 로봇의 수가 세계 1위다. 문제는 그만큼 사라질 일자리다. AI가 이미 기존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한 미국은, 주요 기술 기업부터 대규모 인력 감축에 들어갔다. 일자리가 사라질 노동자들에게 대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과제다.

베네수엘라 13년 독재 붕괴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는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을 13년 독재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진 건, 현지시간으로 2일 밤 10시 46분이었다. 작전을 지휘한 미 합참의장은 "현지 기상 상황이 호전되면서 바다와 산악지형, 낮은 구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는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와 '나이트 스토퍼'로 불리는 제160특수작전 항공연대가 맡았다. '확고한 결의' 작전으로 이름 붙인 이 작전은 1월 2일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은밀하고 정확하게 수행되었다. F-22 전투기, EA-18 전자기기 등 공중 엄호 속에 투입된 특수부대원들은 명령이 떨어진 지 약 3시간 만인 새벽 2시1분, 마두

로 관저에 도착했다. 당시 침실에서 자고 있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강철로 된 안전 공간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도달하지 못했다고 미 당국은 밝혔다. 케인 합참의장은 "마두로가 대피했다"라고도 약 47초만 안전문을 폭파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개월 동안 미국 정보팀은 마두로를 찾아내고 그의 이동 경로, 거주지, 여행지, 식습관, 의복, 애완 동물까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오전 3시 29분, 미 특수부대원들은 한 명의 인명피해 없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군 함정에 태워 베네수엘라 해상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다만 마두로 관저 내에서 거센 총격전이 있었고, 미군 항공기 한대가 공격을 받아 일부 파손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